가수 김호중 씨 SNS 캡처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등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이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했다. 또 김 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한 이후 경찰이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서울에 있는 김 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17시간 뒤에야 음주 측정이 이뤄진만큼 그의 실제 음주 여부와 함께 김 씨와 소속사 사이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수사 중이다.  
  
  
  
  
  
  
  
가수 김호중 .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한편, 김호중의 소속사에서 그가 출연하기로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의 출연을 옹호하는 열성 팬층과는 다르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과거 구설수가 다시 조명되면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대형 공연은 취소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위약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요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이미 이달 23일 열리는 공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를 주최하는 KBS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를 대신할 출연자를 섭외하라고 주관사에 요구한 상황이다. KBS는 오는 20일까지 주관사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KBS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주관사 측은 KBS가 요구한 대체자 섭외에 관해서는 공연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체자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연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해 대체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합을 맞추기가 힘들다"며 "KBS가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대체자 섭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 관계자는 "환불과 위약금 문제가 있어 공연 전면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